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7.20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TSMC도 연간 자본지출 가이드스 상향

AI 반도체 수요의 구조적 강세 확인: 파운드리도 AI Capex 사이클에 합류

- TSMC의 호실적과 자본지출 가이드스 상향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별개로 AI 인프라 및 반도체 공급망의 수요와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펀더멘털 훼손이 동반되지 않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AI 공급망 병목 관련해 반도체 장비주에도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엔트로픽, 알파벳은 스페이스X에게 임대 사기 당한걸까? -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릴 Capex 사이클, 2026.07.03 발간). 장비주들은 전방 산업의 투자사이클에 민감하다. 과거 반도체 장비업황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컸지만, 이제는 파운드리 기업들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 TSMC는 FY 2026 자본지출 전망을 기존 520~560억 달러에서 600~640억 달러로 상향했다. AI, HPC 및 5G 분야에서 고객들의 구조적인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체 자본지출 가운데 70~80%는 첨단공정 기술 및 생산능력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약 10%는 특수공정 기술, 10~20%는 첨단 패키징, 테스트 및 마스크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가 인텔스 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TSMC는 고객의 제품 로드맵과 실제 수요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투자 집행에 규율이 강한 기업이다. TSMC의 투자계획이 크게 상향됐다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걱정과 달리 AI 관련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CEO는 AI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계속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TSMC는 2029~2030년까지 이어질 구조적 수요를 고려해 생산능력과 자본지출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매출성장률 전망을 미국달러 기준으로 4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했다. 기존 5개년 AI 반도체 매출 연평균성장률 예상보다 성장세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2025년 착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팹 3에 이어 TSMC는 이번에 애리조나 생산거점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내 누적 투자계획을 2,65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투자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고객 수요에 맞춰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대만에도 향후 수년 동안 선단공정 및 첨단 패키징 팹 13곳을 건설하고, 일본 팹 투자도 가속할 예정이다. 3나노미터 팹을 대만, 애리조나, 일본에 각각 한 곳씩 추가하고, 대만의 5나노미터 장비를 3나노미터 생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나노미터 생산능력의 2026~2028년 증가율과 N3·N5 생산능력 증가율은 기존 기술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단공정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유리한 수급환경에서도 단기간에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해 고객을 압박하기보다는 장기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가격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 우리는 인텔스 자료를 통해 메모리와 함께 파운드리도 투자 사이클에 합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호황을 누렸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달리 TSMC의 영업이익은 역성장했다. 당시 TSMC 선단공정의 주요 수요처가 모바일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매출성장률도 2018년 하반기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둔화됐으며, 2019년에는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당시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TSMC의 선단공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보다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당시 데이터센터가 GPU와 AI ASIC이 아니라 CPU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였기 때문이다.
- TSMC의 자본지출은 2018년과 2023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선단공정 대규모로 확대할 만큼 구조적인 수요 신호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GPU, AI용 ASIC 등을 중심이다. HBM과 첨단 패키징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데이터센터가 TSMC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커졌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업들의 증설을 위한 투자 확대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수요로 이어진다. ASML의 견조한 실적과 강한 수주, EUV 및 DUV 장비 생산능력 확대 계획도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장비사들의 생산 능력보다 강력한 수요가 나타난다면 장비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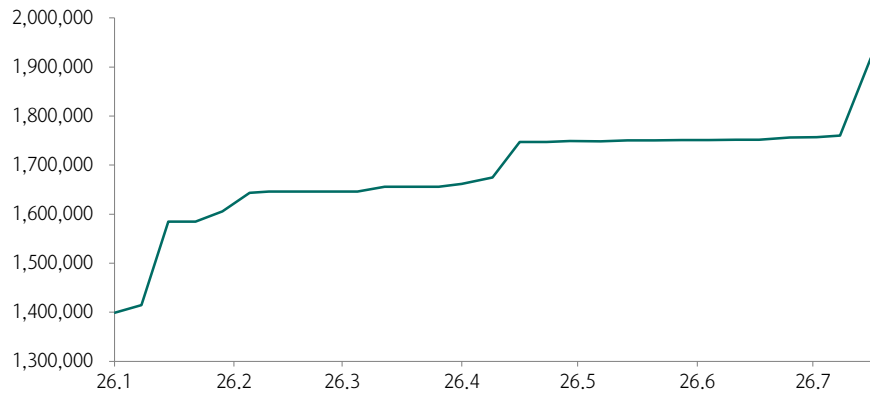
도표1. FY 2Q26 컨센서스 대비 실적

(백만 대만 달러)	FY 2Q25	FY 1Q26	FY 2Q26	YoY	QoQ	컨센서스	차이
매출액	933,792	1,134,100	1,270,380	36.0%	12.0%	1,266,040	0.3%
매출총이익	547,369	751,295	860,311	57.2%	14.5%	852,162	1.0%
영업이익	463,423	658,966	766,603	65.4%	16.3%	743,745	3.1%
EPS	15.36	22.08	27.25	77.4%	23.4%	24.20	12.6%

자료: 하나증권, Factset

도표2. TSMC의 FY 2026 자본지출 컨센서스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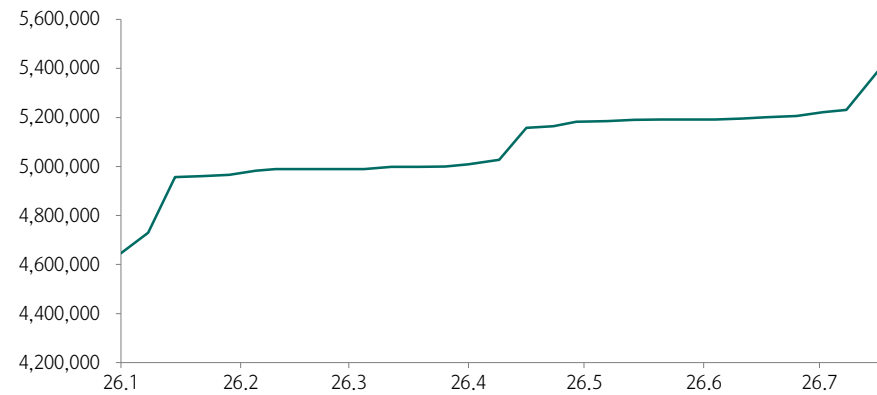
(백만 대만 달러)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3. TSMC의 FY 2026 매출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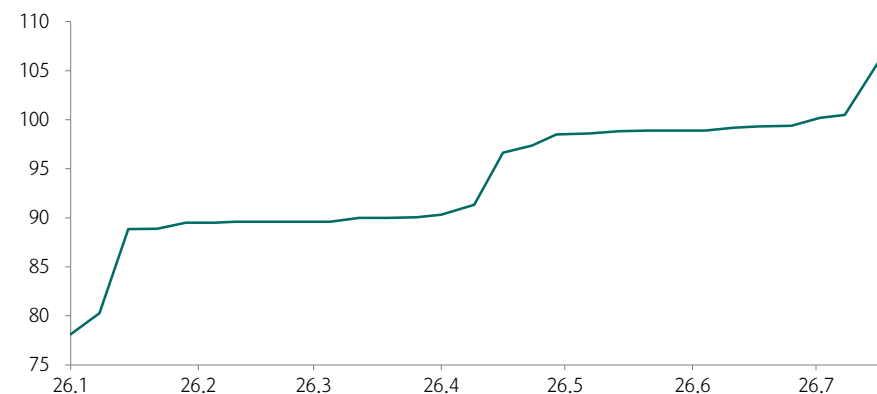
(백만 대만 달러)



자료: Factset,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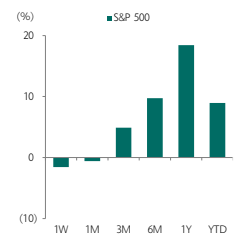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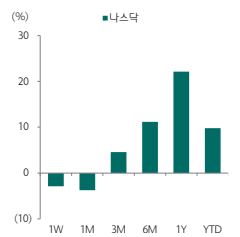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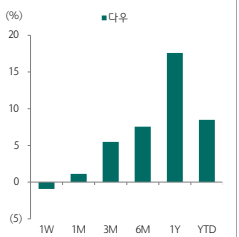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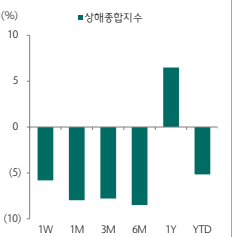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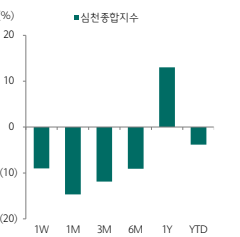
도표4. TSMC의 FY 2026 EPS 컨센서스 추이

(대만 달러)



자료: Factset,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57.7	25,520.2	52,146.4	3,764.2	2,434.1
1W (%)	-1.6	-2.9	-0.9	-5.8	-9.0
					

주) 7월 17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7월 13일~7월 17일) 리뷰: 기술주 중심의 약세, 애플은 강세

-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3대지수의 수익률은 다우 -0.9%, S&P 500 -1.6%, 나스닥 종합 -2.9%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4%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0.5%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 ETF(VTV)는 각각 -2.4%, -0.6%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비M7 ETF(XMAC)는 각각 -1.1%, -1.9% 등이다.
-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했던 물가는 예상보다 약했다. 현지시각 14일 발표한 6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 +3.5%/MoM -0.4%(예상치 YoY +3.8%/MoM -0.1%, 이전치 YoY +4.2%/MoM +0.5%)였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 +2.6%/MoM Flat(예상치 YoY +2.8%/MoM +0.2%, 이전치 YoY +2.9%/MoM +0.2%)등이다. 우리가 지난주 위클리에서 주장한 것처럼 관세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항공료는 유가 변동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완만하게 약해질 여지가 있다.
- 헤드라인 및 핵심 6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을 하회했다. 헤드라인 6월 생산자 물가지수의 MoM은 -0.3%(예상치 MoM Flat, 이전치 MoM +0.6%)고, 핵심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MoM +0.2%(예상치 MoM +0.3%, 이전치 MoM +0.1%)다. 우리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를 통해 가늠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5월보다 낮아진 6월 ISM 가격지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한 거시 이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란 내륙으로 공습 표적을 넓히면서 중동으로 전투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란의 지역 철도,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교량 2곳 등을 타격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란은 즉각 전면 공세를 경고했다. 친미 걸프국의 민간 시설들을 타격하기도 했다.
- GICs Level 1 기준 상승 상위 섹터는 에너지(+5%), 부동산(+2.3%), 필수소비재(+1.4%), 금융(+1%), 헬스케어(+0.1%) 등이다. 에너지의 상승은 지정학적 갈등으로 올라간 유가 덕분이다. 부동산과 필수소비재, 헬스케어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하락 상위 섹터는 정보기술(-3.8%), 커뮤니케이션(-2.4%), 산업재(-1.4%) 등이다. 정보기술 하위 부문별 수익률은 하드웨어 +1.9%, 소프트웨어 +1.3%, 반도체 -7.5%, 통신장비 -8.5%, 전기장비 및 부품 -8.7%, IT 서비스 -14.6% 등이다. IT서비스는 IBM의 급락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 M7의 수익률은 애플 +5.8%, 마이크로소프트 +2.3%, 아마존 +0.8%, 알파벳 -2.9%, 메타 -3.5%, 엔비디아 -3.9%, 테슬라 -6.6% 등이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애플의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AI 자본지출 부담이 부각된 것으로 판단한다. M7 기업들은 성장주이면서 퀄리티 팩터로도 부각됐던 기업들이다. 높은 ROE와 견조한 잉여현금흐름 덕분에 어려운 거시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AI 투자사이클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높은 금리 및 통화정책 불안이 있는 가운데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지출은 잉여현금흐름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 이번 주(7월 20일~7월 24일) 프리뷰: 알파벳, 인텔, 방산기업 등의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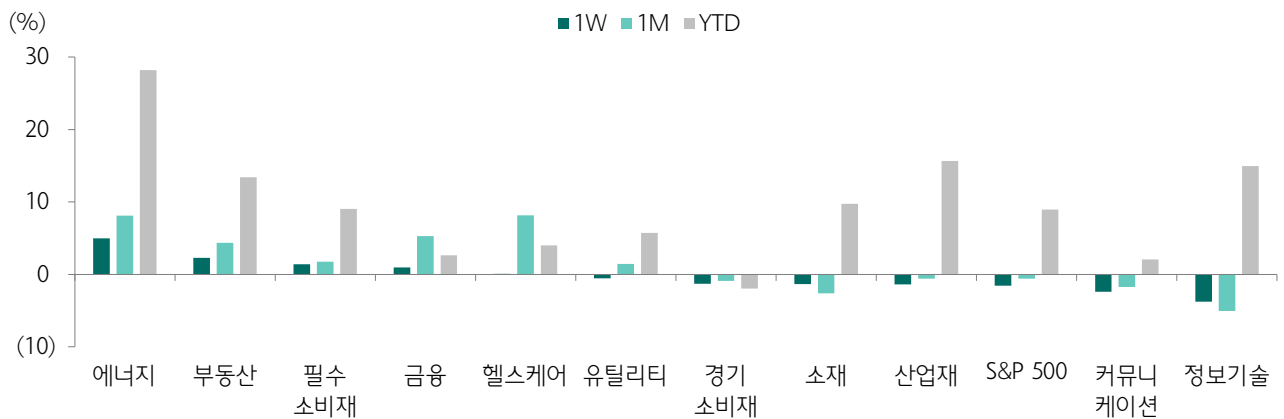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지정학적 위기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것이다.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주엔 연준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없다.
-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통해 1) 자본지출 가이드스 추가 상향 여부, 2) 인공지능의 수익화(광고, 멀티모달, TPU 및 컴퓨팅 임대 사업 등), 3) 클라우드 성장성 등에 주목할 것이다. 알파벳의 자본지출 가이드스는 상향할 여지가 있다. 알파벳은 서버 공급 대비 강한 수요를 강조하고 있다. 모자란 컴퓨팅 확보를 위해 스페이스X 등을 통해 브릿지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 워런 버핏도 알파벳의 AI 자본지출 확대와 자본효율성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워런버핏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알파벳 투자에 대해 직접 주도했으며, 더 일찍 투자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사업 경쟁력에 대해선 강한 긍정적 관점을 보였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월가 투자 대상보다 높다고 평가했지만, 인공지능 투자 특성상 막대한 실물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에 대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자본지출 전망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현지시각 18일 기준 알파벳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023억 달러(YoY +24.8%), 매출총이익 621억 달러(YoY +27.3%), 매출총이익률 60.7%, 영업이익 353억 달러(YoY +25.7%), 영업이익률 34.6%, EPS 2.51달러(YoY +28%) 등이다. 사업부별 매출 컨센서스는 구글 서비스 828억 달러(YoY +18%), 구글 클라우드 194억 달러(YoY +67.9%) 등이다. 구글 서비스 내 부문별 매출 전망치는 구글 광고 712억 달러(YoY +17.5%), 구글 구독 및 플랫폼 115억 달러(YoY +20.5%) 등이다. 구글 광고 부문 내 하위 부문별 매출 예상치는 검색 광고 555억 달러(YoY +20.6%), 유튜브 광고 63억 달러(YoY +7.3%), 구글 네트워크 63억 달러(YoY +0.2%) 등이다.
- 인텔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인텔은 지난 분기 실적에서 공급망 차질이 있었지만 제품 가격을 인상한 덕분에 호실적을 달성했다. 인텔 덕분에 서버용 CPU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AI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CPU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인텔에 기대하는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미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주도권을 위해 인텔을 파운드리 기업으로 육성하고 싶어 한다. 미국 정부 기조에 발맞춰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인텔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인텔은 이번 실적에서 호실적뿐만 아니라 명확한 성장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주요 방위산업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지정학적 위기 및 나토, 중동 등의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감안하면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의 호실적을 예상한다. 시장참여자들은 미국 정부의 방산 예산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2025년 7월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조정법안에 국방 분야 추가 예산 1,500억 달러를 포함해 통과시켰었다(FY 2026). 트럼프 행정부는 FY 2027 국방 예산 1조5,000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기존 1조 + 1,500억 달러 + 3,500억 달러).
- 2026년 중동 군사작전으로 미국이 미사일과 탄약을 사용하고 작전비가 발생했다. 장기적인 군 현대화 예산과 별도로 소진된 비용을 메워야 했다. 6월 24일 876억 달러 수준의 긴급 추가예산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671억 달러를 확보했다. 7월 15일 하원 예산위원회가 공개한 슬림형 재정조정안은 총 950억 달러였다. 국방비는 600억 달러 수준이다. 초기 계획이었던 3,500억 달러에서 줄어들었지만, 공화당이 재정조정 절차를 이용해 추가 국방비를 추진하기 위한 첫 관문을 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20일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 MoM(이전치 0.1%), 21일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19,800건), 22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65%)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6,692,000배럴), 23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전치 208,000건), 24일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이전치 53.9) / 7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이전치 51.2) / 7월 S&P 글로벌 종합 PMI(이전치 51.9) / 6월 신규 주택 판매(이전치 580,000건)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연준 인사는 없다. 7월 39일 예정된 미국 기준금리 결정(FOMC)을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20일 STLD / DPZ, 21일 SCHW / DHR / MMM / NOC / GM / MSCI / DHI / EQT / HAL / KEY, 22일 GOOGL / TSLA / PM / GEV / TXN / T / NOW / CME / KMI / WAB, 23일 INTC / RTX / TMO / UNP / BX / LMT / NEM / FCX / HON / DLR / URI, 24일 XOM / AXP / NEE / VZ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7/17)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57.7	-1.0	-1.6	-0.6	4.9	9.7	18.4	8.9
나스닥	미국	25,520.2	-1.4	-2.9	-3.8	4.6	11.2	22.1	9.8
다우	미국	52,146.4	-0.8	-0.9	1.1	5.5	7.5	17.6	8.5
STOXX600	유럽	641.5	-0.3	0.1	0.9	3.2	6.4	17.3	8.3
KOSPI	한국	6,820.6	-6.4	-8.8	-24.7	9.7	39.6	113.9	61.8
KOSDAQ	한국	791.8	-4.5	-5.4	-18.1	-32.6	-18.9	-3.5	-14.4
상해종합지수	중국	3,764.2	-3.0	-5.8	-8.0	-7.8	-8.5	6.5	-5.2
심천종합지수	중국	2,434.1	-5.2	-9.0	-14.7	-11.9	-9.1	13.0	-3.8
항테크지수	홍콩	24,562.2	-1.8	1.6	2.7	-6.8	-7.3	-1.1	-4.2
TOPIX	일본	3,919.2	-2.7	-2.9	-3.1	3.9	9.2	38.3	15.0
니케이 225	일본	64,141.1	-4.0	-6.4	-10.0	8.1	21.5	61.1	27.4
니프티 50	인도	24,334.3	1.1	0.5	1.3	-0.1	-3.6	-2.5	-6.9
Vietnam	베트남	1,787.5	-0.9	-2.2	-2.0	-2.7	-5.6	19.4	0.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7.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이란 지정학적 긴장 재부각으로 호르무즈 공급 차질 우려가 되살아나며 유가 상승,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정보기술: IBM 어닝 쇼크로 IT서비스 급락. 높은 수준의 금리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AI 관련주도 큰 변동성 나타남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7/14	메타, 루이지애나 AI 데이터센터 5GW로 확대 메타가 루이지애나주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용량을 당초 계획(2GW 이상)에서 5GW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투자 규모도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 메타는 향후 3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로, 현재 전 세계 32개 데이터센터를 운영·건설 중이며 이 중 28곳이 미국 소재.
7/14	트럼프, 이란과 전쟁 재개 공식화 및 지하 핵시설 타격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7일부터 대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음을 공식 통보. 지난달 18일 체결한 종전 MOU를 사실상 파기하며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 '픽엑스 마운틴'에 대한 직접 타격을 예고하며 "조만간 한 방 먹일 것"이라고 강조, 이란 강경파 지도부 제거 가능성도 시사
7/14	반도체 기업 잉여 현금 4,300억 달러 전망 BofA,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이 총 4,300억 달러로 2년 전 대비 3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 반면 아마존, 알파벳, 메타, MS, 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 현금 흐름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으로, 2024년 최대치 2,600억 달러가 사라지는 수준
7/15	미국 6월 CPI MoM -0.4%,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 미 노동부, 6월 CPI가 MoM -0.4%, YoY +3.5%로 시장 예상치(-0.1%)를 크게 하회했다고 발표. 미·이란 종전 MOU 체결 후 유가가 하락하며 에너지 지수가 MoM -5.7% 급락해 전체 하락을 주도. 근원 CPI는 MoM 0.0%(보합), YoY +2.6%로 5월(MoM +0.2%, YoY +2.9%) 대비 완만해짐. 주거비(MoM +0.1%)와 식품(MoM +0.2%)의 상승분을 에너지 하락이 상쇄한 구도로, 인플레이션 정상화 신호로 해석
7/15	코어워브, 파생상품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 위험 헤지 검토 코어워브가 향후 D램,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에 대비해 풋옵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헤지 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 AI 클라우드 기업들이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과 최저가격 보장 조건이 포함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장가격 하락 시 계약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금융적으로 분산하려는 시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신규 생산시설이 2028년 초 본격 가동될 경우 메모리 가격 하락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
7/15	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신축 최대 1년 중단, 주 정부 차원 첫 모라토리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50MW 이상 대형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최대 1년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주 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은 미국 최초.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배경으로, 중단 기간 동안 환경·송전망 영향 분석 및 규제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 판매세 감면 혜택 폐지도 추진 예정.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호컬 주지사의 진보 표심 결집 행보로도 해석
7/16	미국 6월 PPI MoM -0.3% - 시장 예상 하회, 에너지 주도 둔화 미 노동부, 6월 PPI가 MoM -0.3%, YoY +5.5%로 시장 예상치(MoM 보합, YoY +6.2%)를 모두 하회했다고 발표. 휘발유 가격이 12% 급락하며 재화 부문이 MoM -1.4%를 기록해 전체 하락을 주도. 근원 PPI는 MoM +0.2%, YoY +4.7%로 예상치(+0.4%, +5.2%)를 하회. 전날 CPI에 이어 PPI도 예상을 크게 밑돌며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 기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
7/19	요르단서 미군 첫 전사자 발생, 미·이란 무력 공방 최고조 이란군의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18일 발표. 종전 MOU 붕괴 이후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미군은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서 이란 호르무즈 항구와 내륙 도시를 타격. 이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 이란은 쿠웨이트 미군기지 2곳을 드론으로 재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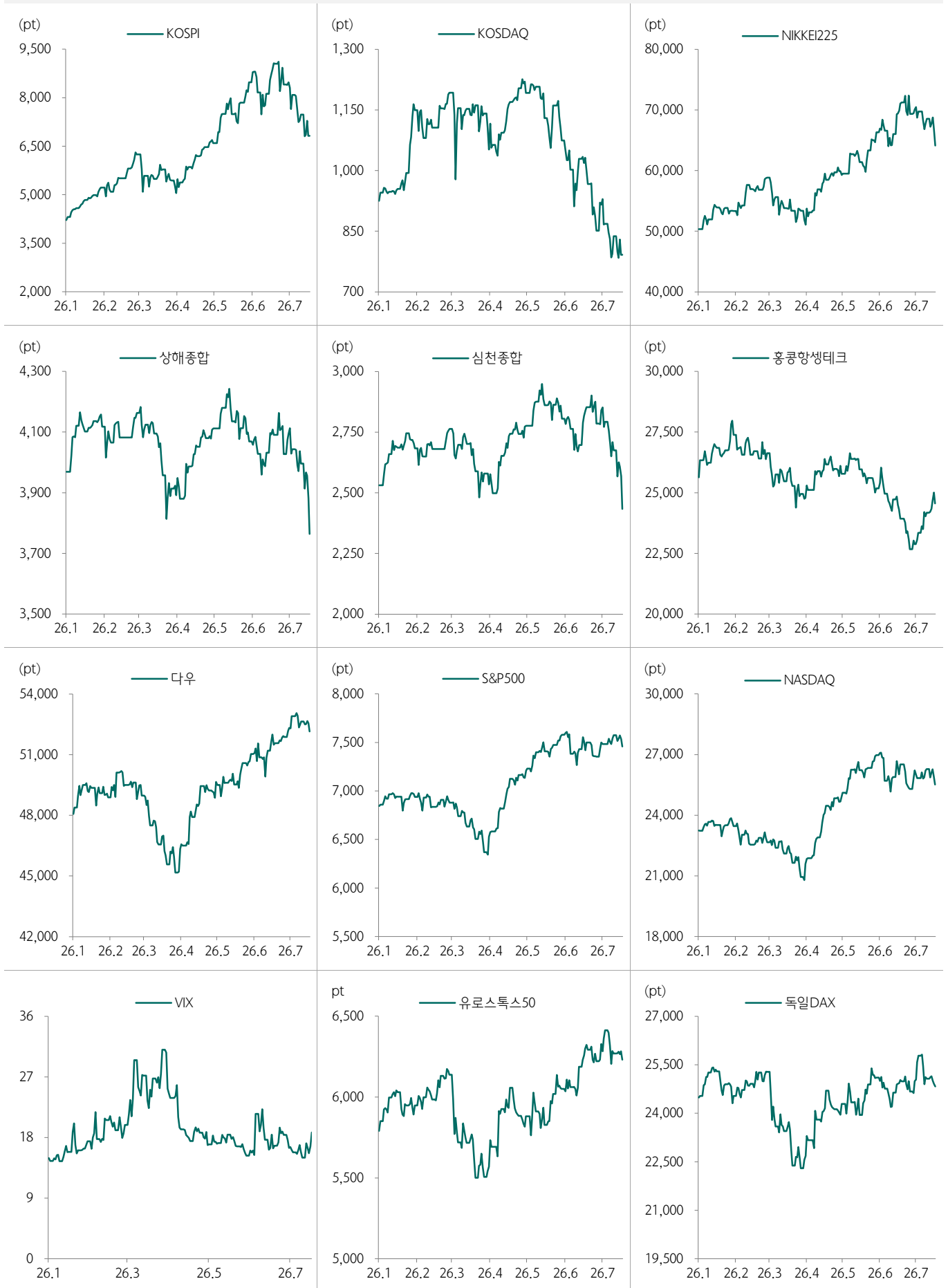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7월)

일	화	수	목	금
		7/1	2	3
		GIS FDS		
6	7	8	9	10
			PEP	DAL
13	14	15	16	17
PGR, FAST	JPM BAC GS WFC C	ASML JNJ MS BNY BLK PNC ELV UAL	TSM GE UNH NFLX ISRG ABT	TRV FITB ROP RF
20	21	22	23	24
STLD DPZ	SCHW DHR MMM NOC GM MSCI DHI EQT HAL KEY	GOOGL TSLA PM GEV TXN T NOW CME KMI WAB	INTC RTX TMO UNP BX LMT NEM FCX HON DLR URI	XOM AXP NEE VZ
27	28	29	30	31
WELL CDNS NUE BRO UHS	MSFT V KO UPS MDLZ TER PYPL	META ARM PG APG MCD BA GD SHOP EQIX	AAPL AMZN AMGN COP GILD VRTX BMY PWR HWM CEG DASH WBD	CL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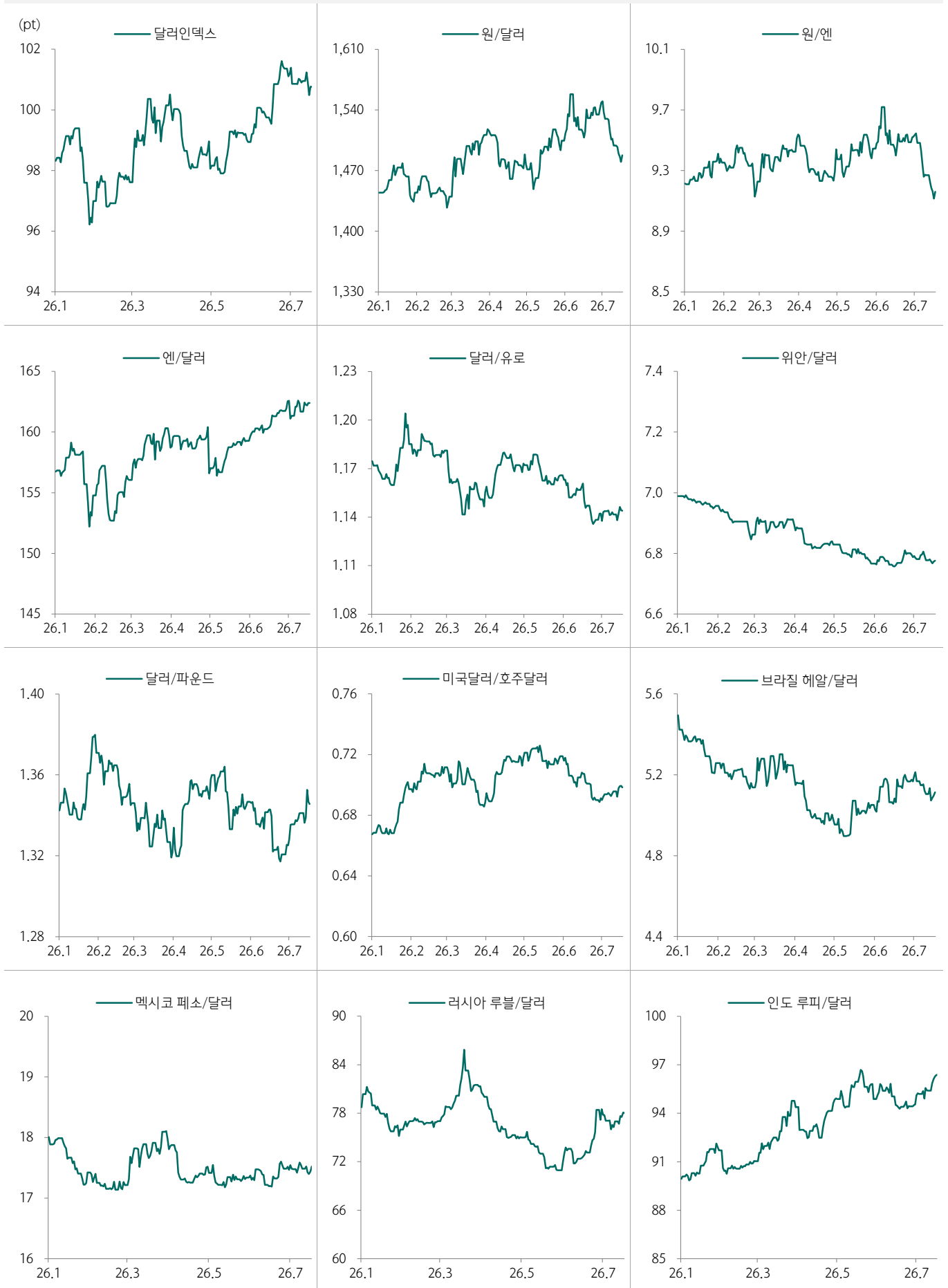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7/20(월)	6월 미국 선행지수 (MoM 이전 0.1%)
7/21(화)	7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이전 -25.8)
7/23(목)	6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이전 -0.1)
7/24(금)	6월 신규주택매매 (예상 600k, 이전 580k)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P] 7월 S&P 종합, 서비스업 PMI [P] 7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이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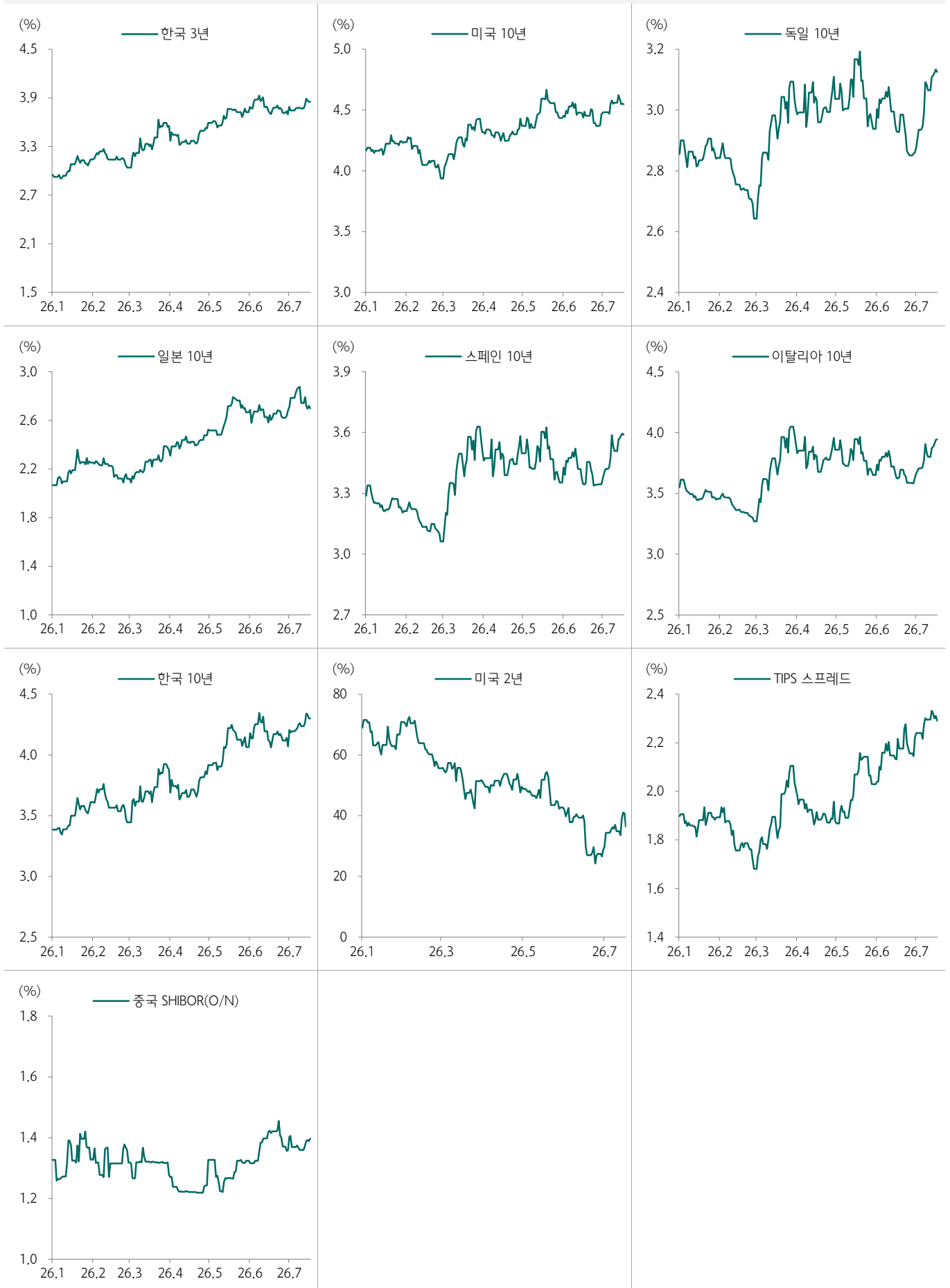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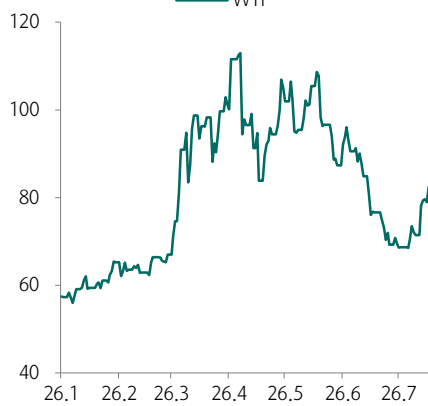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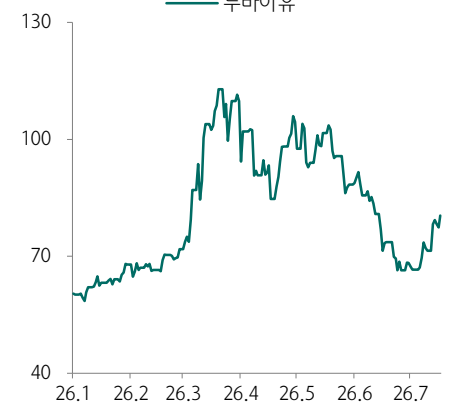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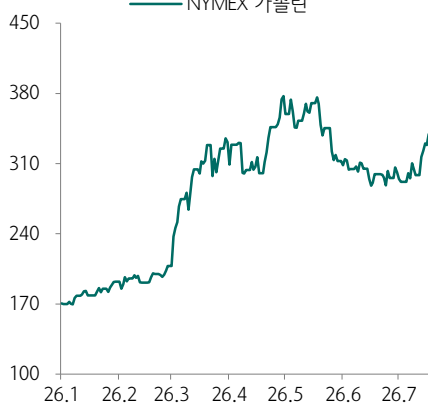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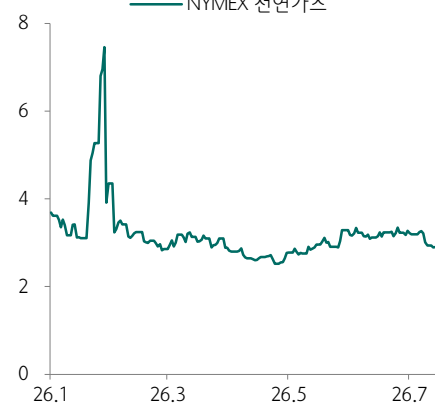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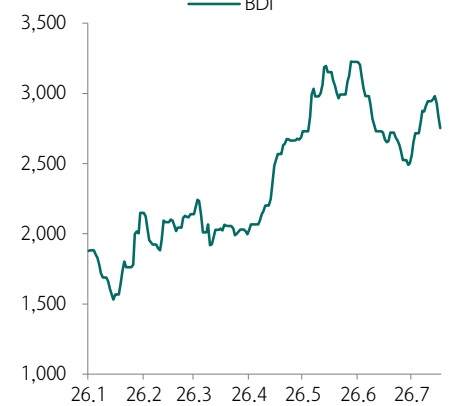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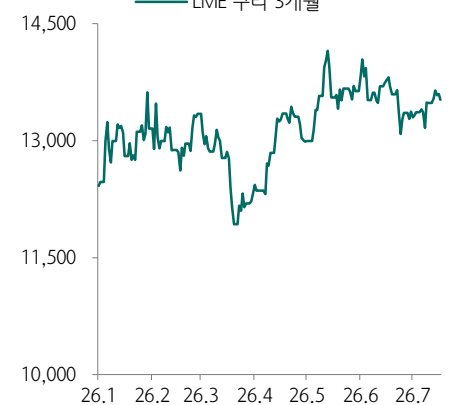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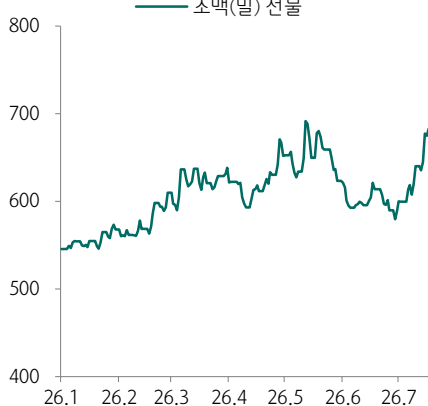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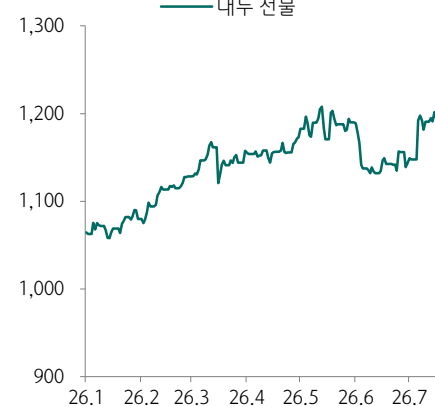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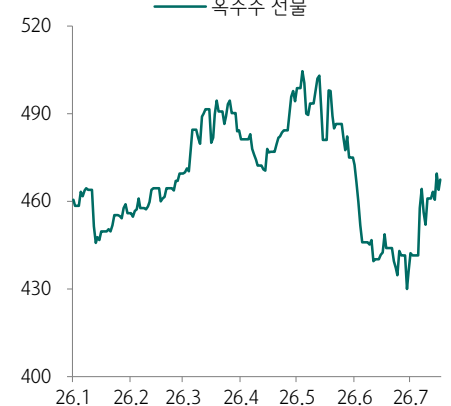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7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